

‘조국 청문회’ 충돌…“신상털기” vs “비리세트”

한국당 연일 의혹 제기 공세

민주당 철통 엄호 역공 나서

29일·내달초 일정도 기싸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엄호와 역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선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추는 등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 공격,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 내기를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으며, 박광온 최고위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동생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 내기를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으며, 박광온 최고위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동생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 내기를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으며, 박광온 최고위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동생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이날 직접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소상히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차단된 만큼 추가 공세에는 적극 차단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및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조 후보자 자신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나라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민국” 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법벌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가 1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조정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로 규정하며 “조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며 추가 공세 전략 등을 논의하는 한편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에도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광덕 의원도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공세를 강화하며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의 최고 실세에 대한 코드인사이자 국론통합을 가장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29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9월 초에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한일관계 개선 단추는 아베 앞에 대화와 타협 함께 하길 기대한다”

이해찬 경제보복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의 시행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열리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

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땀다”고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43만명은 1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2학년과 3학년 88만명, 내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며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예산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수년간 마찰을 벌이다 결국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무상교육 확대를 자질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늘 ‘손학규 선언’…제3의 길 총선전략 제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당의 진로와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담은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한다.

손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언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일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의 핵심 메시지는 손 대표가 당대 개혁을 위해 역설해 온 ‘제3의 길’에 대한 비전 제시와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서 중도개혁세력이 단일화하는 과정의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자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손 대표는

그간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비당권파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온 만큼 이번 선언을 통해 자신의 거취 문제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선언문을 통해 지난 4월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번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파 핵심 관계자는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손 대표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메시지에 바탕이 적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안해…빌라 매입자금은 위자료·양육비”

한국당, 호소문 대필 의혹 제기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는 19일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조씨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여러 의혹과 관련해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 두렵다”며 가족에 대한 직접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씨의 호소문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호소문을 두고 전문가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이제

는 제수를 시켜서 무슨 호소문을 냈는데 앞뒤도 맞지 않는다”며 “감성에 호소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씨가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 매입자금으로 쓴 2억7000만원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



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조씨는 우성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며 “증거를 받았다면 조세포탈,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므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회사(주)가 투자한 가로 등 자동점결기 생산 업체 ‘웰스씨앤티’도 이날 입정문을 내고 “조국이라는 명망가의 가족이 당사와 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며 “투자자 정보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를 투자 받은 게 후회될 뿐”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의원총회서 합의 추대

민주평화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배숙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화당은 최고위 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4기 원내대표에 조배숙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지난 16일부터 당내 제3지대 구축 모임이었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결별했다. 애초 원내대표였던 유성엽 의원이 대안정치와 함께 탈당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운 것이다. 조 신임 원내대표는 전북 익산시 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이며, 지난해 2월 평화당 창당 당시 초대 당 대표로 추대돼 6개월 가장 활동했다. 현재는 당내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대학 시간강사 등 약자들의 의견을 청취, 입법 등을 통해 갑질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심상정 “진보 성장전략 ‘그린뉴딜경제췌’ 내달 발족”

대표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진보의 성장전략을 선보일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내달 발족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새로운 한국형 경제 성장전략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국가투자로 대한민국

설계하는 드림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청년을 위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18세 미만으로 구성되는 ‘청소년특별위원회’와 ‘대한민국 청년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곧 발족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에게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국회의 공식 검증과정과 병행해서 정의당 차원에서 검증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빌라)**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